

매일 만나

2022. 9.

에스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22

9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추석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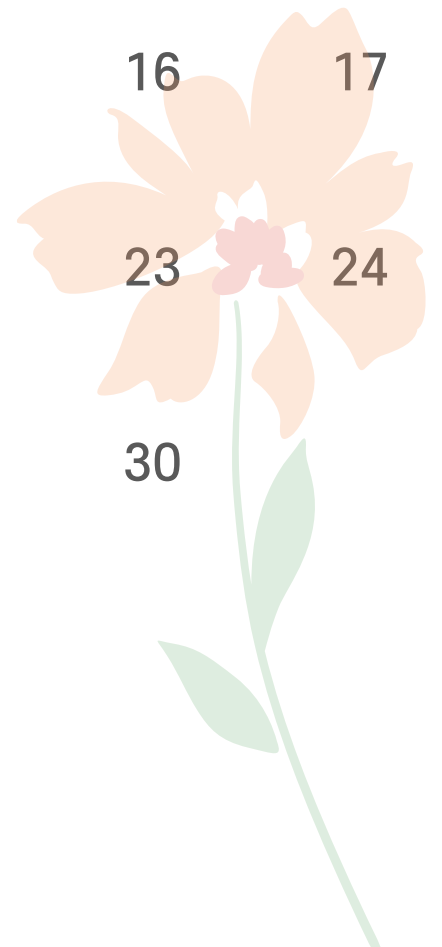
26

27

28

29

30



MEMO

TO DO LIST



행복하게 하는 복음

〈계속 무너지는 유혹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이 말은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셨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 뿐이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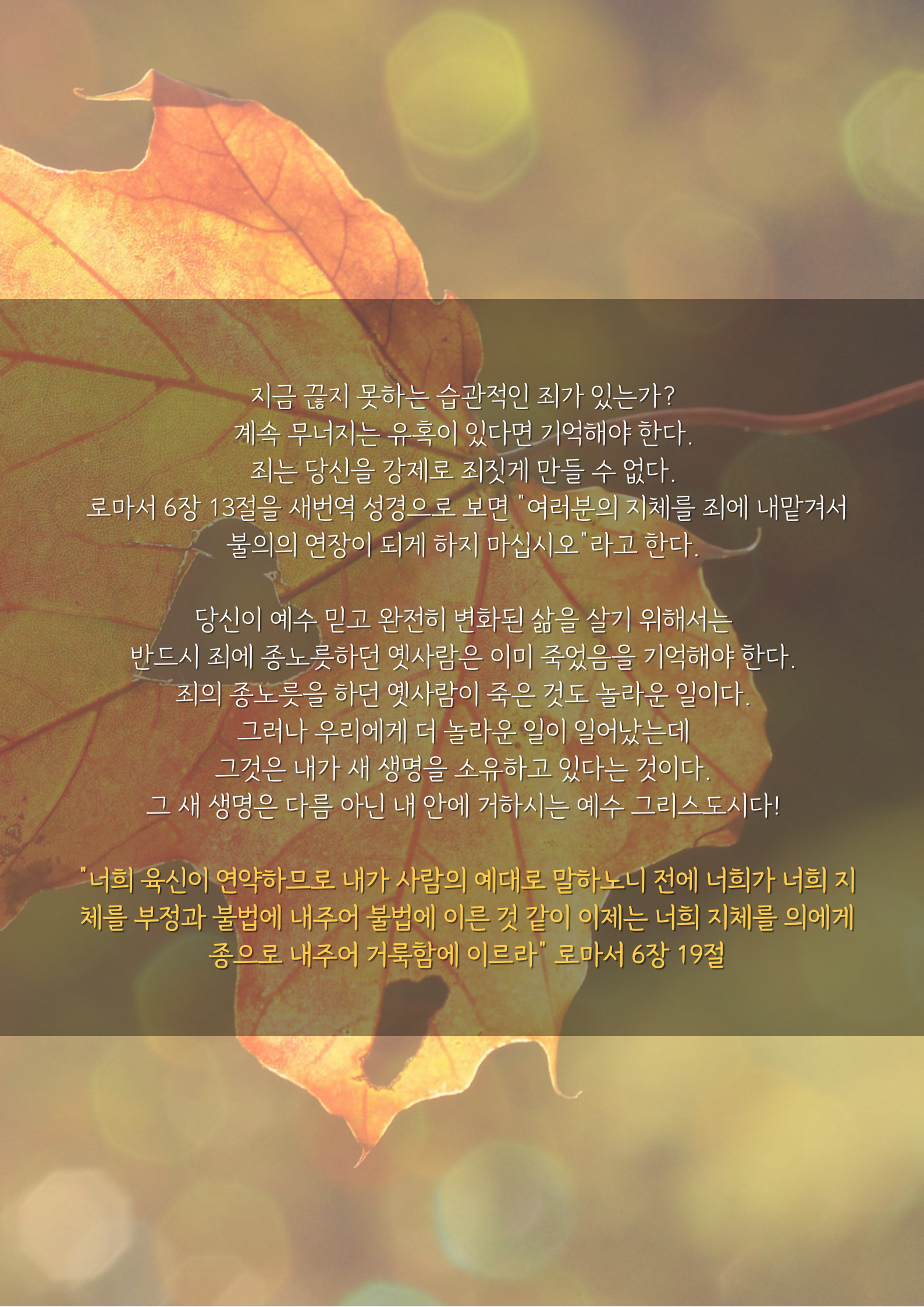
죄의 유혹, 거짓의 유혹, 음란한 유혹, 탐욕의 유혹, 이기적인 생각들의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죽었어! 죄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만약에 당신의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집이에요. 오지 마세요"라고 할 것이다.

당신 안에 육신이 다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끊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가?
계속 무너지는 유혹이 있다면 기억해야 한다.
죄는 당신을 강제로 죄짓게 만들 수 없다.
로마서 6장 1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

당신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죄의 종노릇을 하던 옛사람이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내가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새 생명은 다름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Holy Bible survey

에스라

박에일 목사

1. 저자, 기록연대

저자의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문장도 1인칭(7:28)과 3인칭(10:1)으로 서술되지만 이것이 에스라가 저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에스라가 자신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7:6)라고 지칭한 것도 논거가 될 수 없다(민 12:13). 유대의 전승(탈무드)은 이 책을 에스라가 쓴 것으로 밝힌다. 특히 역대하의 끝부분과 에스라서 초두의 몇 구절은 똑같은 내용이다. 또한 '족장들', '하나님의 집',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성전의 종들' 이란 표현은 역대기와 똑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에스라의 저작권을 입증한다.

저작 연대는 에스라가 B.C. 444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느 8:1-9; 12:36), 에스라 10:17-44의 사건이 일어난 B.C. 458년 4월에서, 느헤미야가 도착한 B.C. 444년 여름까지 이 책을 완성할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2. 역사적 배경

고레스 왕의 조서로 시작되는 본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포로생활과 귀환이,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의 도움과 몇몇의 경건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에스라의 지도하에 성취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의 역사적 배경은 고레스(B.C. 559-530) 왕으로 시작하여 아닥사스다 1세(B.C. 464-423) 통치까지이다. 고레스는 B.C. 539년 10월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듬해인 B.C. 538년에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다. 바벨론 유수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와같이(B.C. 606, 597, 586) 귀환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성전 재건의 역사는 B.C. 536년에 시작되어 B.C. 534년에 중단되었다가 19년만인 B.C. 515년에 완성을 보게 된다.

3. 주요내용

에레미야를 통하여 약속(렘 29:10-14)하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본서에서 성취된다. 모두 세 차례의 귀환 중 에스라에는 제1, 2차 귀환이 나타난다. 에스라서는 그 내용을 크게 둘로 구별해볼 수 있다. 첫째는 1-6장에 걸쳐 나타나는 성전 재건의 역사이다. 약 70년의 세월동안 포로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안정을 누리던 때였지만 잃었던 신앙을 되찾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과감히 귀환길에 오른 것이다. 먼저 제단과 종교적인 절기들을 회복하고, 여호아 하나님의 성전복원 사업을 시작한다. 수많은 반대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슥 4:6) 말미암아 완성케 된다. 두 번째의 주요 내용은 자체 개혁(7-10장)이다. 첫 번째 내용은 스룹바벨이 지도적 인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에스라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1차 귀환후 81년만(B.C. 457년)에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에스라가 귀환한다. 에스라는 1차 귀환으로부터 에스라 귀환 당시까지 극도로 혼탁해진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율법의 말씀에 입각하여 개혁을 성공시킨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죄의 회개와 영적인 부흥은 재건된 성전과 더불어 귀환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4. 핵심내용

에스라의 핵심어는 "귀환"과 "재헌신"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이전에 다 잃어버렸던 성전, 제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재헌신을 해야만 했다.



Holy Bible survey

데살로니가전서

박예일 목사

1. 저자

데살로니가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라고 하는 확실성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다. (살전1:1). 또한 본 서신에 등장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근거에 비추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어휘가 분명히 바울이 사용한 어휘라는 것,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와 일관되는 사상, 초대교부들의 증언이 바울의 저작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2. 기록연대

사도행전 16-18장까지 나타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노정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이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장소들과 일치한다. 또한 살전1:1의 문안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할 당시 실라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시에 바울과 동행했었지만 1차나 3차 여행 때에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이 본 서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구체적인 시기로 보면 주후 51-53년 사이로 볼 수 있다.

3. 기록 장소

본 서신은 기록 장소로는 대개 고린도로 추측하고 있다. 그것의 근거로는 행18:1-5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나아갔는데, 그 때 디모테와 실라가 마케도냐로부터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디모테의 도착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 있었으며, 본 서신도 거기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

4. 기록 목적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가져온 소식은 대부분 반가운 소식이었으나 몇몇 좋지 못한 소식도 있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의 영향을 감소시키려 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신앙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바울 자신의 인격과 동기에 대한 비방 운동과의 정면적인 대결(살전1,2장), 디모데가 가져온 반가운 소식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살전3장), 그리고 시련받는 자들을 격려(살전3:3-5), 성결한 생활과 성실한 삶을 강조, 재림 때의 죽은 자들의 장래에 대한 바른 이해(살전4:13-15)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재림에 대한 바른 준비 등을 가르치려고 한 것에 있다.

5. 주제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할 때 염두에 두었던 여러 가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 서신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한 사건들을 다룬 본 서신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됨을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본 서신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성결한 생활을 영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6. 특징

본 서신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의문과 염려에 대해 바울이 답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서신은 재림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서신은 재림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교훈과 묵시 문학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본 서신은 성결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 깨어 근신해서 빛의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01

목요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스 1:1-11

새찬송가 185장

- 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 4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 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 6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 7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 8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 9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 10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밖의 그릇이 천 개이니
- 11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말씀 암송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 21:1)



1~4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칙령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에 대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5~11절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반환하게 한 것과 1차 포로 귀환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고레스는 칙령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장 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로 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던 성전의 그릇들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유다를 징계하신 결과였고, 이제 회복하게 하시며, 성전의 탈취된 기구들까지 가지고 오게 하심으로 전능하심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할 때는 언제입니까?

Blank yellow rounded rectangular area for writing an answer.

02

금요일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명수가 이러하니

스 2:1-58

새찬송가 214장

1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3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었

4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었

5 아라 자손이 칠백칠십오 명이었

6 바합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이 명이었

7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었

8 샷두 자손이 구백사십오 명이었

9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었

10 바니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이었

11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삼 명이었

12 아스갓 자손이 천이백이십이 명이었

13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육 명이었

14 비그왜 자손이 이천오십육 명이었

15 아딘 자손이 사백오십사 명이었

16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었

17 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삼 명이었

18 요라 자손이 백십이 명이었

19 하숨 자손이 이백이십삼 명이었

20 깃발 자손이 구십오 명이었

21 베들레헴 사람이 백이십삼 명이었

22 느도바 사람이 오십육 명이었

23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었

24 아스마웻 (아스마웨스) 자손이 사십이 명이었

25 기라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칠백사십삼 명이었

26 라마와 게바 자손이 육백이십일 명이었

27 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었

28 벤엘과 아이 사람이 이백이십삼 명이었

29 느보 자손이 오십이 명이었

30 막비스 자손이 백오십육 명이었

31 다른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었

32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었

33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십오 명이었

34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었

35 스나아 자손이 삼천육백삼십 명이었더라

36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었

37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었

38 바스홀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었

39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더라

40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었

41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백이십팔 명이었

42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백삼십구 명이었더라

43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44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45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46 하갓 자손과 사물래 자손과 하난 자손과

47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48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49 옷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새 자손과

50 아스나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51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52 바슬룻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53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54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55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56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57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58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삼백구십이 명이었더라

말씀 암송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슥 4:6)



1~58절 사로잡혀 갔던 자손들 중에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장 1절~58절은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왔는데, 하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수도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고레스 왕이 당시 페르시아를 20개의 도로 나누어 통치하였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 가운데 제5도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룹바벨은 유다 왕의 직계 혈통으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유다 왕의 직계 혈통(다윗의 가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감을 사지 않는 정통성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귀환하는 모든 과정에서 조차 세밀하게 섭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Q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Blank yellow rounded rectangle for writing an answer.

03

토요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스 2:59-70

새찬송가 218장

- 59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 60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육백오십이 명이요
- 61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의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을 따른 자라
- 62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 63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 64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 65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 66 말이 칠백삼십육이요 노새가 이백사십오요
- 67 낙타가 사백삼십오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이었더라
- 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 69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육만 천 다릭이요 은이 오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 7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임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말씀 암송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민 2:2)



59~70절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고 힘든 세월 가운데에도 대부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이방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의 계보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보를 잃어버렸으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족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경건함을 반영하는 징계로 제사장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직의 경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건축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이루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04

주일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스 3:1-7

새찬송가 210장

- 1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 3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 4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 5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와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 6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 7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옹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1~2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각기 전에 살던 도시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단을 수축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제단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했습니다. 번제는 그 제사 드리는 자의 죄의 청산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희생의 의미로서의 속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로이 헌신 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에는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피가 요구됩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피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속의 피가 없이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번제물을 통하여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기에 예물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즐겨 드리는 예물이며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Q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05

월요일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스 3:8-13

새찬송가 208장

8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9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10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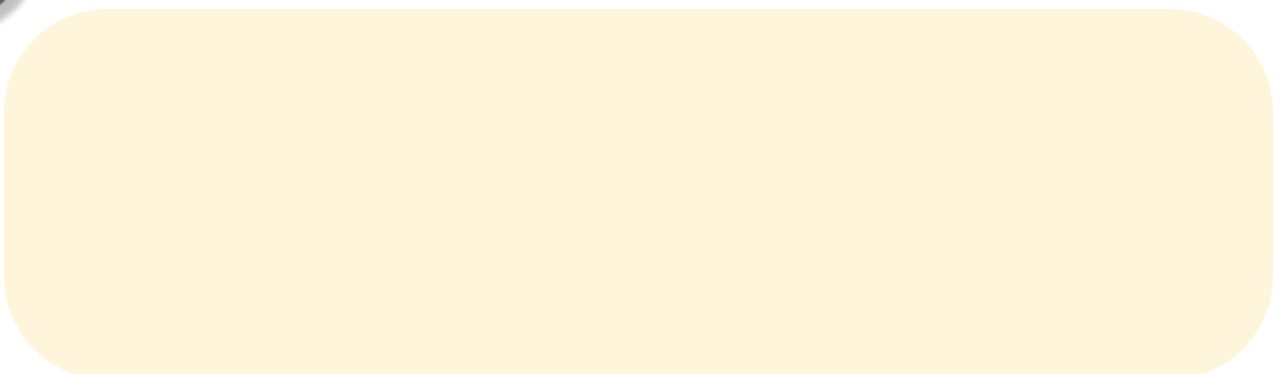
8~13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 본격적인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합니다.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옘바 해변까지 운송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건축자가 여호와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하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백성은 기뻐 즐거이 소리 지릅니다.

일을 선두에서 추진시킨 주요한 인물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그 일꾼들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목수와 석수는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동시에 건축자가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악사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였는데 그들이 기약까지 동원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 됩니다.



우리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달린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06

화요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느니라

스 4:1-6

새찬송가 458장

- 1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 2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하였더니
- 4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 5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 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말씀 암송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1-3)



1~2절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합니다. 이들은 함께 건축하자는 말로 힘 있게 출발하는 유대인에게 뒤로 미루게 함으로써 뜨거운 열정이 식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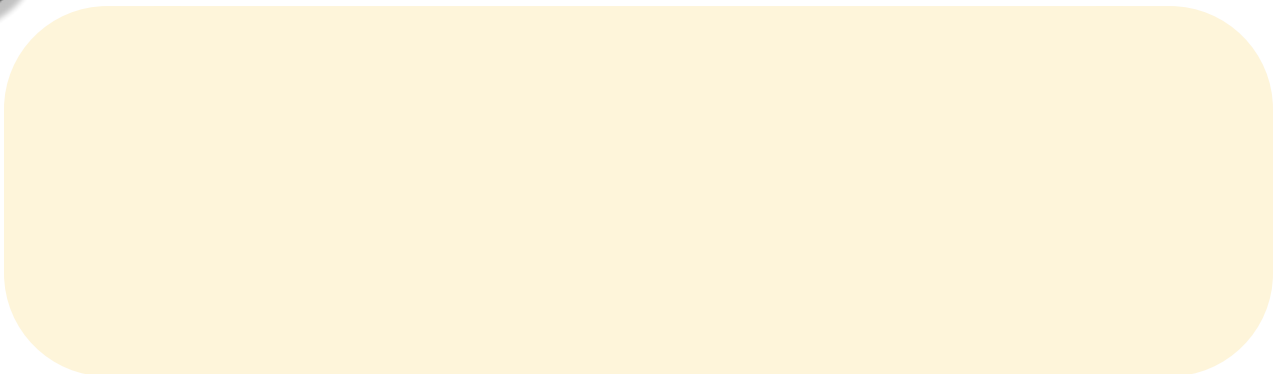
3절 결단합시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역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참된 여호와 신앙과 무관한 혼합 주의적 종교를 신봉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종교적 연관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혼혈족이었다는 점에서 혈통적 연관성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던 차에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는 제안은 우호적인 일 같은데 이들은 거절합니다.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여 거절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07

수요일

성곽이 준공되면 왕의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스 4:7-16

새찬송가 299장

7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8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9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10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11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12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 이제 왕은 아시옙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4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15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16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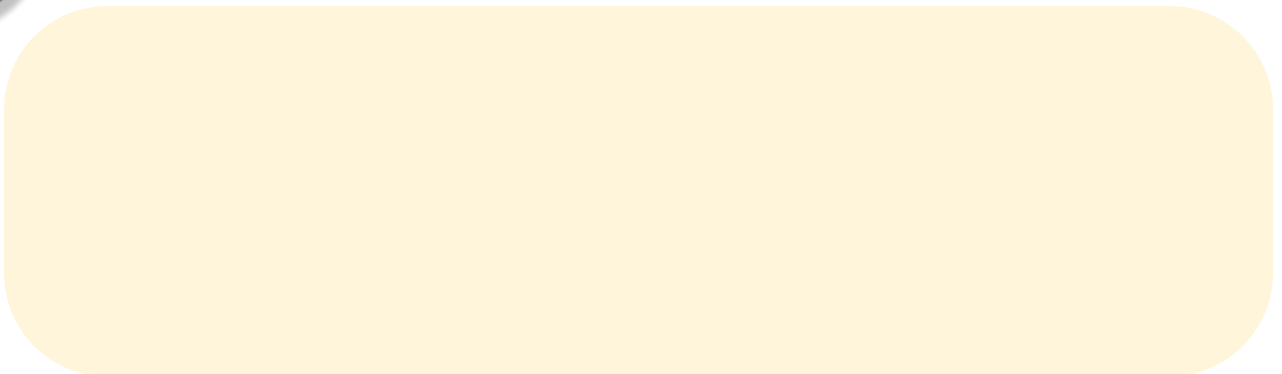


11~16절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재건은 곧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지금까지 누려 왔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루살렘 재건 작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의 유화적인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의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고(2-3), 그 일이 여의치 않자 바사 왕 아하수에로에게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중상모략(12)하는 서한을 보냄으로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왕의 손에 붙이기 위해 거짓을 고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했지만, 훨씬 나중인 느헤미야 당시에 성곽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느 2:13). 또한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라고 모략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한 무리로서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이라고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영토가 침해를 받게 되리라고 아부하기도 합니다(16).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충성스러운 자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재건 작업이 일시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유혹도 핍박도 이기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08

목요일

권력으로 공사를 그치게 하니

스 4:17-24

새찬송가 285장

17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18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20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
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21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2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23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
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말씀 암송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스4:24)



17~24절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많은 세월이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들의 방해는 아하수에로 왕 치하에서 먼저 언급되고,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벌인 방해, 왕이 보낸 또 다른 편지도 언급됩니다. 7-16절의 첫 상소문에서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 동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다시 요새화되면 페르시아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반역적 역사를 회상시키며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 페르시아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새의 편지에서 유대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왜곡한 내용이 효력을 얻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 편지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 요새화 작업의 잠재적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왕에게서 온 편지는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리오 왕 재위 2년까지 약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거짓말이 성전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짓말들은 무엇입니까?

09

금요일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막지 못하고

스 5:1-17

새찬송가 383장

- 1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 2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 3 그 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 4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 5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 6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 7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 8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엮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 9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 10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 11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 12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 13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 14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 15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 16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 17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말씀 암송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스5:5)



1~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5:1-2은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활동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주전 520년경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5:3-5은 성전 재건에 대한 지방관리들의 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닷드내와 지방 관리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6~17절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닷드내와 지방 관리들은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13절)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말과 방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Q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0

토요일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스 6:1-12

새찬송가 390장

- 1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 2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 3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 4 큰 돌 세 켠에 새 나무 한 켠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 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지니라 하였더라
- 6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 7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 8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 9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 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 11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 12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스6:7)



1~12절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의 합법성을 지시합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의 높이와 너비 같은 규격과 경비는 왕실에서 낼 것,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총독이던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 동관들은 하나님의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7절)고 명합니다. 또 다리오는 성전 재건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마치 다리오가 성전 재건을 간절히 바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배후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전 재건이 이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11

주일

권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한지라

스 6:13-22

새찬송가 408장

- 13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 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 14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 15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 16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 17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두 마리 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 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 19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 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 21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 22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말씀 암송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스6:15)



13~18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지원한 다리오는 성전 봉헌을 위해 제사드리기를 허락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의 식민지였지만, 식민지 민족의 종교 기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사 제국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그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지시에 따라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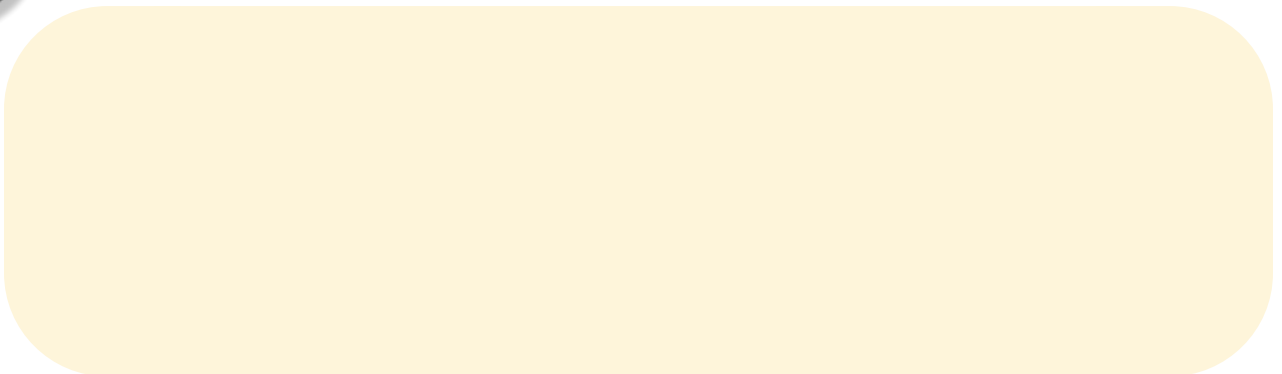
19~22절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성전을 봉헌한 이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으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20-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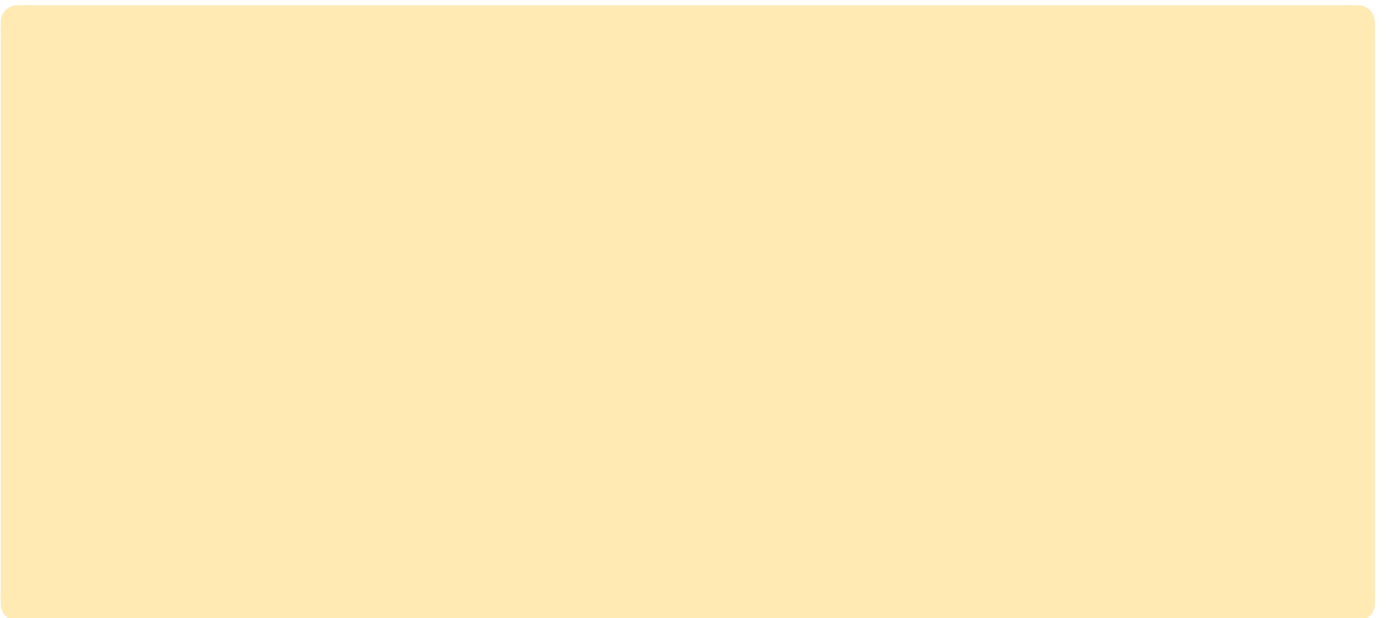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절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합니다.



Q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12

월요일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스 7:1-10

새찬송가 380장

- 1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 2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 손이요 아히둡의 육대 손이요
- 3 아마랴의 칠대 손이요 아사랴의 팔대 손이요 므라욧의 구대 손이요
- 4 스라히야의 십대 손이요 옷시엘의 십일대 손이요 복기의 십이대 손이요
- 5 아비수아의 십삼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십오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라
- 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 7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 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 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 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 암송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4-15)



1~5절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었듯이, 이 에스라의 족보도 에스라가 아론에서 스라야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혈통임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6~10절

에스라의 제사장적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호와와 그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는지,
기도해 놓고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13

화요일

아는 자는 재판하게 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라

스 7:11-28

새찬송가 288장

11 여호와와 그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13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14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15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16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이며
19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21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22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밧까지, 기름도 백 밧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23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임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다
27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와 그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관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 4:20)



11~2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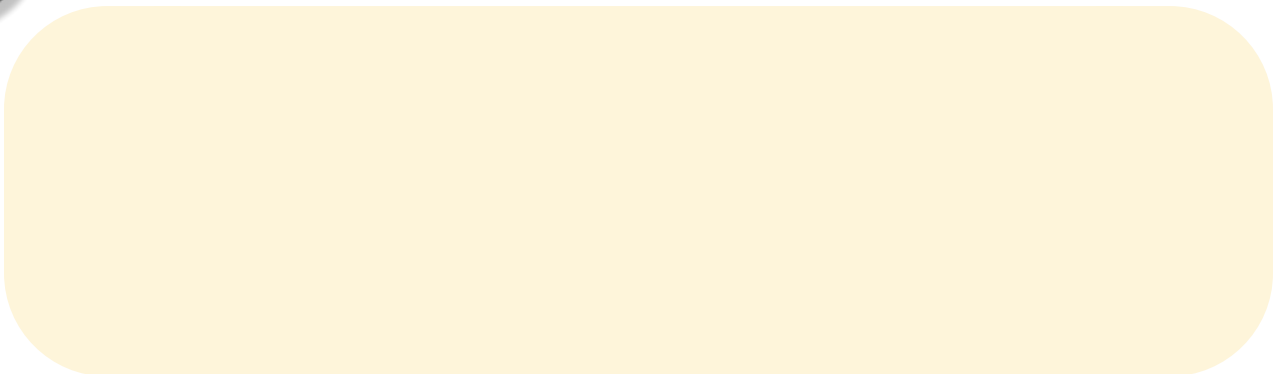
바사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2차 포로귀환을 허가하고 원조를 명령하는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바사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유대 또한 역시 바사에게 가급적 순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27~28절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유다 왕국과 바벨론과 바사제국의 관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

수요일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스 8:1-20

새찬송가 265장

- 1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 2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 3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백오십 명이요
- 4 바핫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백 명이요
- 5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삼백 명이요
- 6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오십 명이요
- 7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요
- 8 스바댜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팔십 명이요
- 9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백십팔 명이요
- 10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육십 명이요
- 11 베배 자손 중에서는 베배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십팔 명이요
- 12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십 명이요
- 13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육십 명이요
- 14 비그왜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봇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었느니라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 15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 16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 17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 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 18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십팔 명과
- 19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이십 명을 데려오고
- 20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이백이십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 받은 이들이었더라

말씀 암송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 12:50)



1~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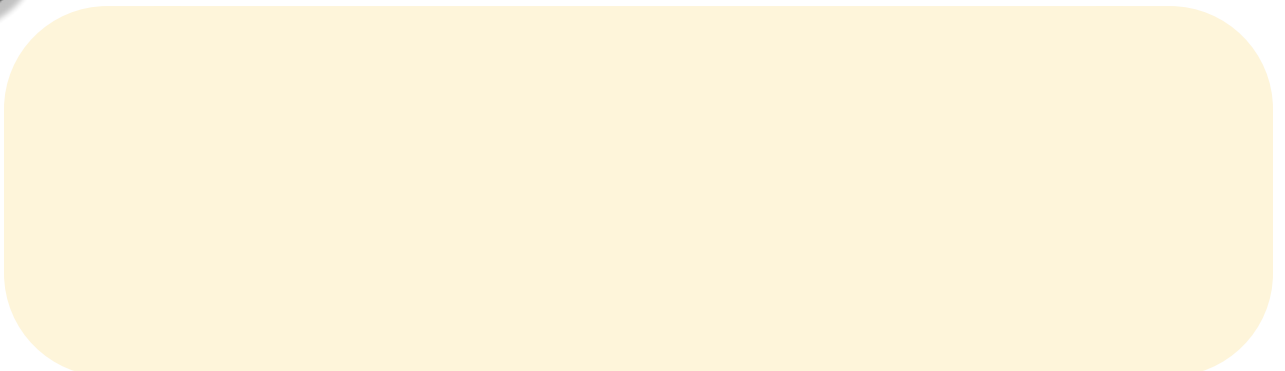
제1차 귀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제2차 귀환 숫자는 그에 1/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기준으로 족보가 기록되지 않고 유명한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 대부분 유다지파 출신들이기 때문입니다.

16~20절

에스라가 귀환민의 행군을 전면 중지하고 레위인들이 많은 마을로 사절단을 보내자 레위인 40여명과 느디님 사람 220여명이 귀환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율법상 비천한 일만을 담당하게 될 느디님 사람들이 상당수 포로귀환 대열에 참여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15

목요일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스 8:21-36

새찬송가 384장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24 그 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명을 따로 세우고
25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 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26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27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 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두 개라
28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29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31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32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삼 일 간 머물고
33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34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 때에 기록하였느니라
35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말씀 암송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스 8:22)



21~23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느헤미야는 군대의 호위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였으나 에스라는 오히려 불신앙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즉 에스라는 모든 귀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포로 귀환의 책임을 진 지도자라면 느헤미야처럼 군대의 호위를 받아들이겠는지, 에스라처럼 불신앙으로 간주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Blank yellow rounded rectangle for writing an answer.

16

금요일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스 9:1-15

새찬송가 420장

- 1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 2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 3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앓으니
- 4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앓았더니
- 5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 6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이니이다
- 7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 8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 9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 10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 11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 12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 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 14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9절

1-4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실태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상심을 9:5-15절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하였을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신7:1-5)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어 결국 온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멸망에 르게 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귀한 이후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방여인과 혼인이 팽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Q 내가 이방의 풍습을 좇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17

토요일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 10:1-17

새찬송가 459장

-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 2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 3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 4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 5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 6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 7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 8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 9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삼 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이십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 11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 12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 13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 14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 15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 16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 17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말씀 암송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4:19)



본문설명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 중보기도할 때에 많은 백성이 함께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스가냐를 대표로 한 포로 귀환민들이 에스라에게 개혁을 천명하며 에스라를 격려하였습니다(1-4절)이에 에스라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였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회중은 리더를 세워 일정기한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회중은 말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면 15절을 보면 이러한 에스라의 개혁조치에 다른 의견을 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라의 개혁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개혁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다르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화합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까?

18

주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스 10:18-44

새찬송가 407장

- 18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19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솟양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20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21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야요
22 바스홀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내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23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24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25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잇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26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맛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27 샷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내와 엘리아십과 맛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28 베배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래요
29 바니 자손 중에서는 므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30 바핫모압 자손 중에서는 앗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31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잇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32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33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맛드내와 맛닷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매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34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대와 아르람과 우엘과
35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36 와냐와 므레못과 에라십과
37 맛다냐와 맛드내와 야아수와
38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39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40 막나드배와 사새와 사래와
41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42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43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맛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내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말씀 암송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본문설명

18절, 19절은 에스라의 개혁조치 발표에 대한 제사장들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하고 죄에 대해서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무리들 또한 이방여인과 결혼하며 세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책망을 듣자 이방아내를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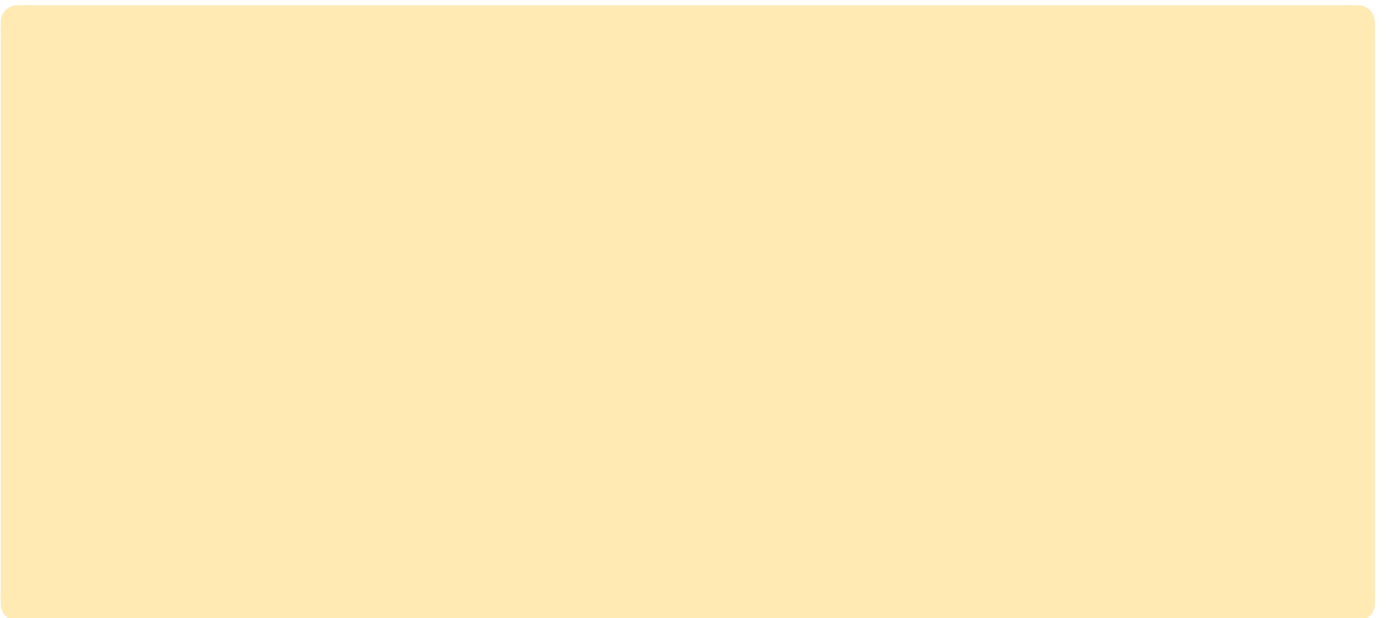
20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추방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참된 개혁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가능하게 합니다.



Q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순종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설교 노트〉



〈설교 노트〉



19

월요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살전 1:1-10

새찬송가 570장

-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 9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살전1:4)



본문이해

본문설명

본문은 서신의 도입부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는 이 편지의 발신자를 밝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10절은 그러한 감사의 구체적인 언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란 중에서도 바울과 주를 본받아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고 칭찬과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목회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용질문



Q 내가 맡은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목양하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20

화요일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살전 2:1-12

새찬송가 191장

-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 6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 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 10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 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 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살전2:7)



1~12절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사역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킨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울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다.

5절 탐심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과도한 욕망을 말한다. 또는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이기도 하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했고, 그래서 탐심을 죄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롬7:8)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21

수요일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 받은 자 되었으니

살전 2:13-16

새찬송가 200장

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4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 암송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살전2:13)



13~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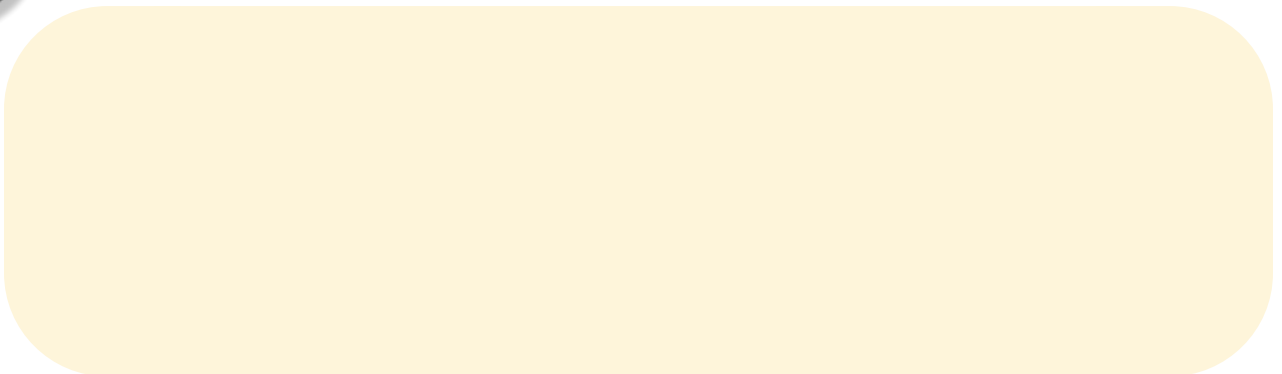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넘친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이 주는 교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견뎠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이방인들과 달리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한다.

16절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는 '이미 임하다', '이전에 임하다', '먼저 임하다'라는 의미다. 즉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말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유대인들에게 나중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끝까지 먼저 임해서 그들이 완전히 파멸되었음을 나타내는 완전한 심판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삶이 됩시다.



22

목요일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살전 2:17-20

새찬송가 195장

17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18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
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말씀 암송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살전2:19)



본문이해

17~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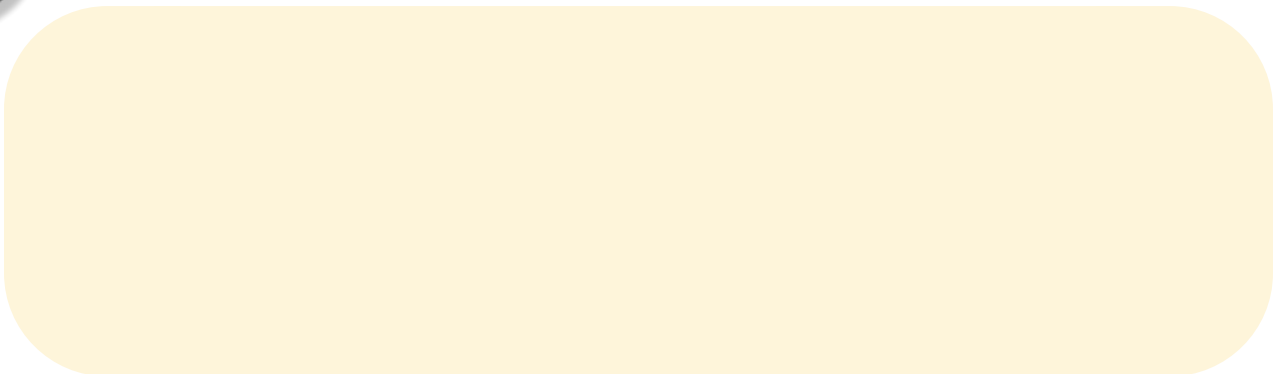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주체가 사탄임을 명시한다(살후2:9). 사탄이 바울을 방해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과 같다.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한 것은 자신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종말에 자신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이다. '강림(헬- 파루시아)'은 본래 지배자가 자신의 통치 지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언어였지만, 기독교는 이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즉 초대교회에서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뜻한다. 바울은 재림하신 주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증명해 줄 존재로 성도를 언급한다. 종말에 성도는 바울의 면류관이며, 이것은 바울의 궁극적 승리를 뜻한다.



적용질문



성령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대상을 돌려봅시다.



23

요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살전 3:1-13

새찬송가 212장

- 1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 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 3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 5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 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 10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 13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암송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전3:13)



1~5절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을 설명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지 못하게 된 바울은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파송하여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대적이 있으므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이제까지 해 온 복음 전파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다

6~10절 디모데의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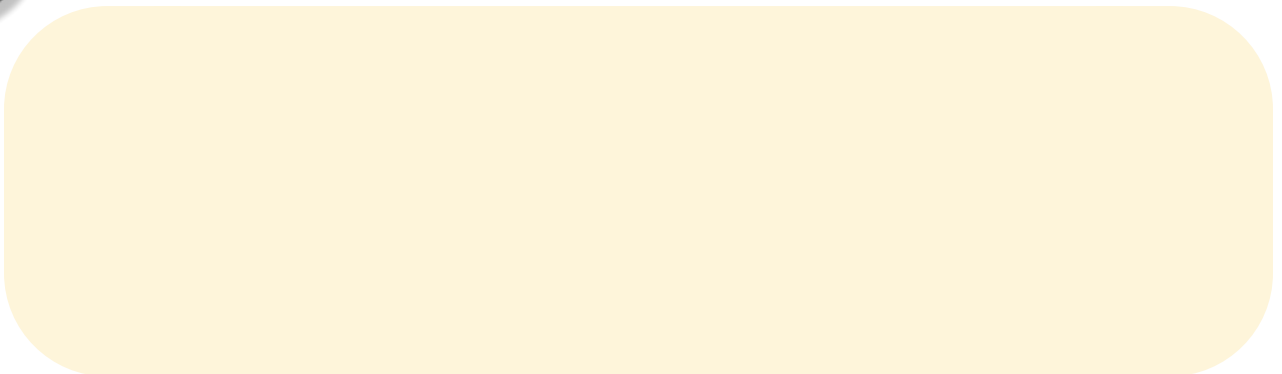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한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으며,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큰 기쁨을 얻었다.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견고한 신앙은 바울에게 삶의 새로운 힘과 활력이 되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방문에 대한 소망을 피력한다.

11~13절 바울의 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간구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랑의 모범으로 삼았는데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성도들도 피차 그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공동체의 믿음이 강건해지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며, 실천해봅시다.



24

토요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살전 4:1-8

새찬송가 438장

- 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 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 암송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살전4:3)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와 바울의 권면

앞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부분은 말하고 있으나 4장에서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특히 성적으로 성결할 것을 강조합니다. 1세기 헬라 사회는 성적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었고, 창녀와 일상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며 이방 종교는 제의 형식으로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Q 하나님이 기쁘하시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5

주일

더욱 그렇게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살전 4:9-12

새찬송가 407장

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
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
기를 힘쓰라

12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암송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살전4:11)



형제사랑과 근면성실해야함을 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 교제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며 칭찬하면서 더욱 사랑하고 나누라 말합니다. 또한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시한부 종말론)를 가지고 생업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요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임함으로 불신자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을 받지 않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서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설교 노트〉



〈설교 노트〉



26

월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전 4:13-18

새찬송가 352장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 암송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살전4:11)



부활에 대한 교훈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에 대해 성도가 임해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Q 나는 온전한 부활신앙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27

화요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 5:1-11

새찬송가 325장

-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 9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5:6)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

주의 재림의 날은 도적이 찾아오듯 임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나, 빛의 자녀인 성도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기에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같이 잠들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서로 소망 가운데 격려하며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합니다.



Q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Blank yellow rounded rectangle for response.

28

수요일

항상 선을 따르라

살전 5:12-15

새찬송가 320장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
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 암송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 20:22)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삼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하며 선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갚을 때 비로소 악은 이 땅 어디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 악은 이 땅에서 근절될 것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용사로서 이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Blank yellow rounded rectangle for writing an answer.

29

목요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22

새찬송가 191장

- 16 항상 기뻐하라
-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 암송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신 30:11)



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일들에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며 지극히 평범한 일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아주 특이한 것에 있거나 무슨 기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별한 나머지 신비롭고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일상의 경험과 삶에 더욱 깊이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30

금요일

부르시는 이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23-28

새찬송가 393장

-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암송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살전 2:8)



미쁘신 이가 이루실 것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한 기도(23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Q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하고 있습니까?

Blank space for the answer to the application question.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매일 만나

2022. 9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손아론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